

# 芬皇寺 伽藍配置推考

金正基

최근에 慶州地域에서 몇몇 重要한 寺址에 대한 發掘調査가 實施되었고 또 現在 皇龍寺址의 發掘이 進行中이다. 이들 調査에서 특히 高仙寺址와 皇龍寺址의 調査가 重要했음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古新羅와 統一新羅時代의 伽藍配置에 대한 通念을 크게 修正해야 할 重大한 事實들이 發見되었다.

얼마전 만해도 古新羅의 伽藍配置는 中門·塔·金堂 및 講堂이 南北一直線上에 配置되고 中門과 講堂사이를 廻廊으로 連結하여 塔·金堂을 둘러싸는 一塔式伽藍配置가 主流이고 그의 代表的인 寺刹이 皇龍寺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一九七六年 부터 시작된 皇龍寺址에 대한 發掘調査에서 오늘 까지에 밝혀진 事實만으로도 그러한 생각이 전혀 틀린 생각이었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그 결과는 金堂 左右에 다시 한 채석의 建物이 金堂과 나란히 있어 마치 高句麗의 淸岩里寺址의 伽藍이나 一九五七年에 發掘調査되어 그 伽藍樣式이 처음으로 確認된 日本 奈良의 飛鳥寺址의 伽藍과 같은 高句麗系統으로 보이는 三金堂式伽藍임이 밝혀졌다. 淸岩里寺址와 飛鳥寺址의 경우는 東·西 金堂이 塔左右에 配置되는形式이 있으며 皇龍寺址의 경우는 金堂 左右에 東·西 金堂이라고 할수 있는 建物이 配置되는 點이 좀 다르다. 이것은 皇龍寺의 伽藍이 高句麗系統의 三金堂式伽藍에서 發展變化하여 新羅式으로 만든 것이며 新羅의 個性을 나타낸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이 밖에 一塔式伽藍으로 생각되어 왔던 寺址에는 輿輪寺址와 芬皇寺 등이 있었다① 그러나 輿輪寺址는 現在 金堂址로 생각되는 遺構만이 뚜렷이 地表에 큰 土壇으로 남아 있고, 그 밖의 建物址에 대해서는 地表에 아무런 痕跡을 남기지 않았다. 一九七〇년에 慶州市內에서 京釜高速道路에 連結되는 進入路인 金城路 開設工사에서 이 寺址의 西廻廊一部가 破壞되게 되었기에 事前調査가 寺址의 西北部에서 이루어졌다. 이 調査에서 西廻廊 北半部와 講堂으로 생각되는 基壇의 痕跡만이 確認되었고 그 밖의 部分에 대해서는 調査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輿輪寺의 伽藍이 一塔式伽藍이었다는 確證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皇龍寺址의 伽藍樣式이 一塔式伽藍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므로서 皇龍寺 보다 앞서서 建立된 輿輪寺의 伽藍도 一塔式이 아닌 可能性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다.

高仙寺址는 甁 建設에 따라 寺址全域이 水沒되게 되었기에 國寶三八號인 三層石塔은 慶州博物館 庭園으로 移建되었고 寺址는 一九七五年에 發掘調査되었다. 이 調査報告書는 아직 發表되지 않아 자세한 內容은 알 수 없으나, 그 伽藍의 樣式은 전혀 豫測을 뒤엎는 것이었다. 즉 石塔 東쪽에 좀 北쪽에 치우쳐서 金堂址가 있고 金堂 뒤예 講堂, 金堂 앞에는 中門이 있어 이 中門과 講堂사이를 廻廊으로 連結하여 金堂을 둘러싸았고, 塔에는 別途로 廻廊이 設置되어 廻廊 南邊 中央에 작은 門을 갖고 있었다. 또 이 塔의 東廻廊과 金堂을 둘러싼 廻廊의 西邊 南半部는 서로 接觸하여 이 接觸된 部分만이 廻廊의 폭이 두 칸으로 된 複廊으로 處理되어 있었다. 이러한 形式 즉 塔을 中心으로 한 空間과 金堂을 中心으로 한 空間을 각각 獨立시켜 東西로 나란히 配置한 伽藍配置는 이 寺址 調査에서 처음 確認된 것이다. 筆者는 이미 우리나라 古代 伽藍가운데 아직 우리들이 전혀 豫測치 못한 伽藍配置가 있었을 것으로 豫見한 바 있었다② 그것은 皇福寺址나 羅原里五層石塔 또는 獐項里五層石塔 등의 寺址나 石塔의 立地條件이나 그 地形이 從來의 伽藍配置概念으로는 解釋이 되지 않음으로써 豫測한 것이었으나 高仙寺가 塔 空間과

金堂空間이 각각 獨立된 伽藍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高仙寺址에 대해서는 從來 東塔이 木塔、西塔이 石塔으로 된 雙塔式伽藍이 아니겠느냐는 見解가 있었으나 ③ 이번 發掘調査에서 東塔址로 생각된 것이 金堂址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상의 皇龍寺址와 高仙寺址의 發掘調査에서 얻어진 伽藍配置에 關한 成果는 두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新羅에서 一塔式伽藍의 存在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는 없으나 確認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統一新羅初期 부터 雙塔式伽藍 以外에 塔과 金堂을 각각 獨立시킨 空間으로 配置하는 樣式 假稱하자면 兩院式伽藍(塔院과 金堂院)이라 할 수 있는 伽藍配置가 確認된 것이다.

## 二、

芬皇寺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皇龍寺 金堂址 北方約三〇〇m에 位置하여 그 形態는 後世의 改築으로 變化된 部分이 많으나 創建當初부터 傳해 내려오는 模磚石塔을 中心하여 얼마 간의 石材들이 散在하는 작은 規模의 寺刹로서 오랜 法燈을 이어받고 있다.

芬皇寺의 創建은 三國史記에 의하면 善德王三年(西紀六三四年)으로 皇龍寺 보다 일찍 造營된 것으로 記錄되었다. 또 三國遺事의 記錄에 의하면 新羅의 名僧 慈藏이나 元曉가 이 芬皇寺에 居住했고 景德王 一三年(西紀七五四年)에는 三〇萬餘戶의 大藥師如來銅像을 鑄造 安置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記錄으로 보아 當時의 芬皇寺는 國家的인 大刹이었음이 分明하다.

芬皇寺의 現狀은 石塔을 中心으로 하여 西南쪽 面 가운데 新羅時代의 幢竿支柱가 서 있고, 塔 北쪽에는 普光殿이란 懸額이 달린 近世에 세워진 西向의 法堂이 있어 藥師如來立像을 安置하였다. 普光殿 前面에는 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寮舍가 東向하고 있으며 普光殿 東北쪽에는 一

九七〇年頃에 寺刹境域을 東西로 擴張하면서 만든 新築寮舍가 南向하였다. 또 現寺刹의 垣牆 西南隅部 가 가까이에는 역시 一九七〇年頃에 佛國寺에서 옮겨온 梵鐘과 鐘閣이 있고 垣牆南邊 中央部에 大門이 있다. 建物址로 보이는 것은 普光殿 基壇 西緣을 끝으로 하여 南쪽과 東쪽으로 좀 더 넓게 자리잡은 基壇이 있고, 普光殿과 舊寮舍사이의 마당 북쪽에 南向하여 東西로 길게 자리잡은 建物基壇이 있다. 이 基壇 西쪽에 좀 떨어져 또 하나의 작은 建物 터가 보인다. 이 밖에 普光殿과 舊寮舍로 形成된 中庭 南端에는 작은 樓門址가 있으며 이 門은 四~五十年前에는 建物이 있었다고 한다. 寺刹境內에 散在하는 遺物로는 가장 많은 것이 四~五種의 大小 礎石들이며 그밖에 石燈、石塔 등의 部材 및 基壇의 外裝 石材들이고, 特殊한 것으로 新羅時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大石井들과 碑石 臺石이 있다.

이 芬皇寺 伽藍에 대해서는 일찍 藤島亥治郎氏에 의해 一塔式伽藍이라고 推定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다 ④.

一九七五年에 이 寺刹 境內에서 東國大學에 의해 發掘調査되었으나 發掘地域이 普光殿 周邊에 極限되었고 調査結果도 아직 發表되지는 않았으나 伽藍配置를 究明할 수 있는 程度의 調査는 못되었던 것 같다.

최근(一九七七年 九月)筆者는 이 芬皇寺 舊寮舍의 一室을 빌어 約二十日間 滯留한 바 있었다. 이 동안에 地表 觀察을 통하여 이 芬皇寺 伽藍에 대하여 한 樣式을 推測하게 되었다. 한 寺址의 伽藍配置를 地表 觀察이나 調査로 推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推測이 흔히 發掘調査에 의하여 뒤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지금 尙장 木格的인 發掘調査計劃은 없고 또 後日 있을 수 있는 發掘調査에 대한 參考가 될까 하여 敢히 發說하려는 것이다.

結論부터 말한다면 芬皇寺는 前記한 高仙寺址의 경우와 類似한 伽藍配置로서 石塔이 獨立한 하나의 空間 즉 塔院과 같은 形式을 갖고 그밖의 建物은 塔을 莊嚴하기 위하여 그 北쪽 附近에 別個의 空間으로 造營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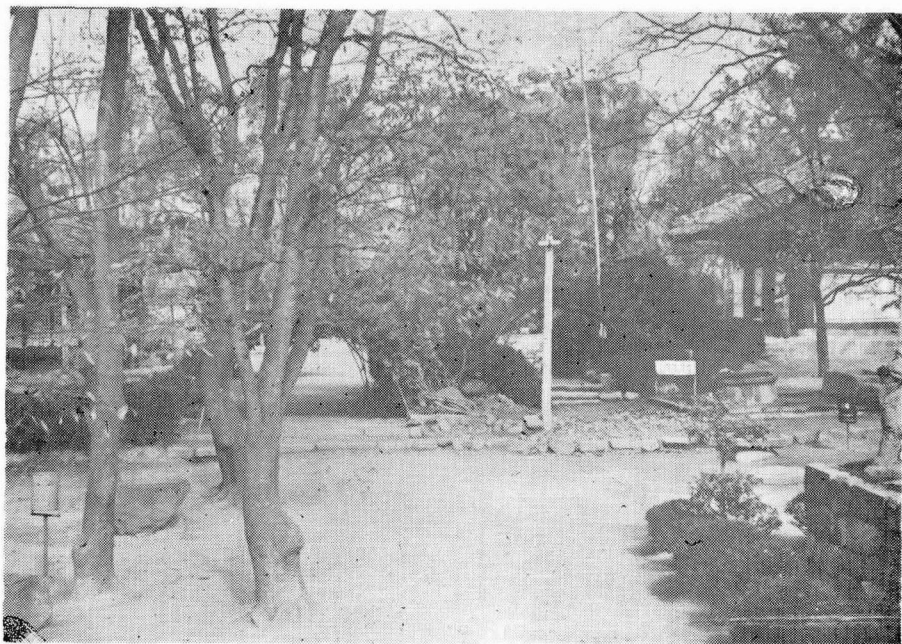


圖 一. 樓門地와 普光 大雄殿地

이렇게 推測하게 된 根據를 다음에 列舉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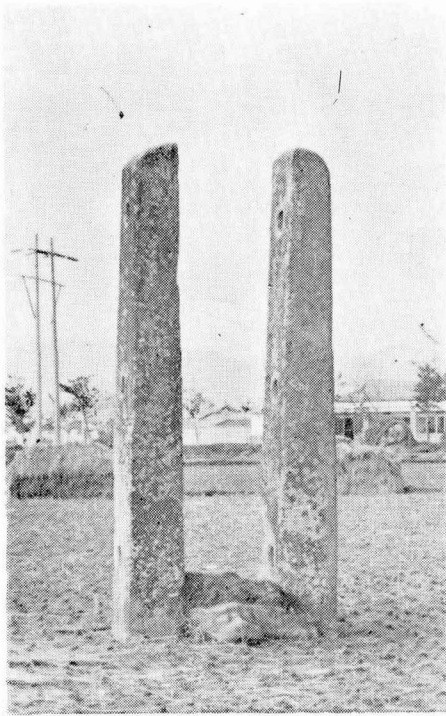
첫째, 現石塔 基壇의 北緣에서 北쪽約 一三m 位置에 틀이 八角形으로 된 石井(三龍變魚井)이 있으며 이 石井에는 元聖王代의 護國傳說이 傳해져 있어 新羅時代 부터 있던 우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萬一이 우물이 新羅時代 부터 있었던 우물이라면 一塔式伽藍의 경주塔과 金堂 사이에 巨大한 우물이 있게 되어 不合理하다.

둘째, 現石塔 基壇 南緣 中央에서 約六m 南쪽에 大形の 石燈上, 下臺石이 있고 그 밑에는 一、八五m의 臺石이 있다는 것. 단 이 石燈의 上, 下臺石과 그 밑의 方形臺石과는 彫法이나 石質에 약간의 差異가 있어 同時에 만들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어느 것이나 新羅時代를 벗어나지 않는다. 普通古代 伽藍에서 石燈은 法堂 앞에 놓이게 되며 塔 앞에 놓이는 것은 보지 못했다.

셋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羅代의 것으로 보이는 石井 바로 西北쪽에 樓門址가 있고 이 樓門址를 한 境界로 東쪽에 普光殿 西쪽에 舊寮舍가 있고 樓門 北쪽에 中庭을 두고 大雄殿址로 보이는 큰 建物基壇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地域은 극히 그 規模와 範圍가 작으나 完全한 寺刹의 形態를 갖추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形態의 寺刹이 언제 이곳에서 形成되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近世의 寺刹은 그 대부분이 一柱門을 들어서서 樓門을 지나야 寺刹의 中心部가 될 法堂을 비롯한 堂塔들이 配置된다. 이런 傳統으로 볼 때 이 芬皇寺는 寺刹에서 가장 重要視되어야 하고 또 當然히 重要視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模塼石塔이 寺刹의 中心建物들이 놓이는 樓門 南쪽에 없고 樓門 밖에 서 있어 近世 寺刹의 伽藍 形態에 맞지 않는 것이다. 寺刹의 形態란 傳統을 重要視하고 塔과 本尊을 가장 中心的 要素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近世의 伽藍形態라고는 하나 模塼石塔이 樓門 밖에 位置하게 된 理由가 單純히 近世에 寺刹이 되락되어 任意로 縮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역시 그러한 形態가 생긴 重要不可缺한 原因 즉 當初부터 塔院과 金堂院이 別個 空間으로 造營된 傳統을 이어 받은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 理解하기 쉽겠다.

넷째, 現存 模塼石塔의 初層塔身 四面에 있는 龕室의 石扉 兩側에 金剛力士 즉 佛國을 守護하는 仁王像이 配置된 點으로 보아 이 塔 하나로 完全한 하나의 佛國 즉 伽藍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 점에 關해서는 佛敎敎理와 깊은 相關關係가 있는 것이며 佛敎敎理에 대하여 門外漢인 筆者로서 自信을 갖고 主張할 수 있는 點이 못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古代伽藍은 中門에 金剛力士 즉 仁王이 자리잡아 佛國을 守護하고 金堂에는 釋迦如來本尊을 安置하여 그 四圍를 釋迦如來를 守護하는 四天王像이 配置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石窟庵의 경우에도 中門을 象徵하는 前室에 仁王이 있고 本尊如來 앞에 四天王像이 있으며 많은 塔에서 發見된 舍利莊嚴具에서도 舍利를 守護하는 四天王像을 보았다. 따라서 芬皇寺石塔의 경우에도 創建當初에 安置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舍利를 四天王이 守護하고 그 舍利를 奉安한 塔이 바로 하나의 佛國 伽藍을 象徵하여 그 門을 仁王이 守護하고 있는 것이 아닐



圖二. 支柱

까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安東地方의 仁王像으로 莊嚴된 塼塔이나 初層塔身에 仁王像을 彫出한 獐項里石塔등과도 關聯있는 것으로 今後의 檢斗가 必要함을 스스로 認定하는 바이다.

### 三、

끝으로 芬皇寺에 대한 向位에 대해서 考察해 보겠다. 지금 芬皇寺의 門은 塔南쪽 약간 西쪽에 치우쳐서 작은 規模의 門이 있어 觀覽客은 이 門으로 出入한다. 이렇게 보면 芬皇寺는 南向의 伽藍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塔院과 金堂院이 각각 獨立되어 南北으로 並置되어 있고 불 때 高仙寺의 경우나 日本의 陸奥國分寺의 경우를 보아도 伽藍의 向은 東向 또는 西向이라야 合理的이다. 또 現普光殿에 安置된 藥師如來가 西向하고 있는데 이것이 萬一 新羅 景德王代에 鑄成된 藥師如來銅像의 傳統 즉 그 位置나 向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역시 伽藍의 向位도 西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밖에 塔 西南쪽 눈에 있는 幢竿支柱 역시 伽藍 向位를 西向 또는 東向인 可能性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幢竿支柱 즉 두 개의 돌 기둥이 南北으로서 있기 때문에 다른 寺刹의 幢竿支柱의 例에 따르면 伽藍은 東向 또는 西向이라야 맞겠다. 또 그 位置가 塔의 西南쪽에 該當하니 역시 伽藍이 西向이라야 寺刹 앞에 놓이게 되어 理致에 맞는다. 그러나 이 두 支柱 사이에 끼어있는 龜形 幢竿臺石의 거북의 머리는 東向하고 있다. 이런 경우 거북의 머리가 寺刹 쪽을 向하는 것이 옳은지 寺刹의 向位에 맞게 놓이는 것이 옳은지 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感覺적으로는 寺刹의 向位와 같은 方向을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寺刹은 東向이라야 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芬皇寺의 元來의 向位는 東向이나 또는 西向인 可能性이 있으나 筆者의 느낌으로는 塔院과 金堂院이 南北으로 並置되어 西向한 것일 可能性이 가장 많다고 보고싶다.

그러나 塔 남쪽에 石燈上·下臺石이 있고 그것이 역시 新羅時代의 그것이라는 점도 전혀 無視할 수 없는 일이다. 伽藍이 西向이면서 塔을

南쪽에서 禮拜하게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塔과 石燈 上·下 臺石 만 본다면 當然히 伽藍은 南向이라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모순이 있어 지금 당장에 芬皇寺의 向位를 結論짓기는 事實上 어려운 일이다.

#### 四

最近에 이루어진 慶州地域의 몇몇 寺刹址에 대한 發掘調査에서 얻어진 成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伽藍配置에 대한 知識을 크게 修正하게 만들었다. 古新羅에서 統一新羅初에 걸친 寺刹伽藍이 意外로 個性 있고 變化가 많았던 것을 皇龍寺址와 高仙寺址의 發掘에서 알게 되었고 따라서 一部 調査되기는 하였으나 興輪寺址, 芬皇寺, 皇福寺址 등의 伽藍이 오히려 어떤 配置를 갖는 伽藍인지 豫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現實 속에서 芬皇寺에 대하여 現在 地上에 나타난 狀況만을 檢討하여 無謀한 感이 없지 않으나 그 伽藍配置에 대한 推測을 해 보았다. 이 推測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推測에 지나지 않고 언젠가 實施될 것으로 믿어지는 寺址 全域에 대한 發掘調査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다면 多幸이라고 생각할 따름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佛敎文化研究의 가장 基礎的인 資料가 될 新羅의 佛敎文化가 그동안 많은 研究와 調査로 큰 成果를 올리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그의 한 部分인 伽藍配置에 대해서는 아직 未治한 點이 적지 않음을 痛感하며 이 分野에 관한 調査 研究가 한층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 (註)

- 1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其一)」 『建築雜誌』 日本建築學會、P、二九九  
一九三〇年 二月 東京。
- 2 拙稿 「韓國의 寺院遺蹟について」 『佛敎藝術』 八三號。日本毎日新聞社、P、  
八七東京。一九七二年 一月。
- 3 秦弘燮 「慶州의 古蹟」 悅話堂、P、一一四、서울 一九七五年 八月
- 4 上掲 註一。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長)